

#### 4 장 부활절: 증거가 아니라 현존 (EASTER AS PRESENCE, NOT PROOF)

A. 주제:

예수의 부활(부활절)이라 함은 몸이 죽은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시체의 소생, p133)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사랑하는 공동체의 가슴속에서 부활했다(p139)는 믿음의 지속적인 신앙고백인 것이다.

B. 문제점:

1. 예수의 몸이 죽은자들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 (Christian Enterprise)가 없어 졌을 거라는 생각
2.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줄수있는 상(reward)은 마지막 때에 그들 자신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생각
3. 부활이 죽음을 생명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판결이라는 생각, 초자연적인 예수에 대한 믿음 (p114)
4. 빈무덤이 은유이며, 시체가 소생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 (부활절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시체의 소생을 믿도록 요구하는가?)

C. 논점:

1. 비이성적인 것(irrational)이 아닌 초이성적인 것(transrational)
  - 1) “예수는 케리그마 속으로 부활했다”(루돌프 볼트만)
    - 처음 신자들의 신앙속으로 부활 → 예수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확신 자체가 부활이라는 뜻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개념의 이해가 필요)
    -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은 누군가의 부활보다는 예수가 고백의 대상이라는 게 쫓점 → 진짜 스캔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 2)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 계속되는 치유와 가르침, 개방된 공동식사(하나님 나라의 핵심) → 육체적으로는 부재하지만 영적으로는 현존
  - 3) 비전(vision)
    - 다마스쿠스 도상 바울이 만난 예수 (예수 사후 3, 4 년) → 몸과 상관없는 이야기
    -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엠마오 두 제자와 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
    - 알아차리기 어려운(elusive) 예수 → 세포덩어리가 아니었기 때문
    - 기원후 80 - 90 년에 들어와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에서 육체적 몸의 부활을 묘사하기 시작 → 비전들이 그 눈부신 성질을 잃고 점차 육신과 뼈를 갖게 됨
2. 현현으로부터 해부학으로... 정치학으로....

- 1) 복음서들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애당초 황홀한 내면의 비전이 손을 만질수 있는 육체의 형태로 발전(?) → 최초 마가의 기록에서부터, 그 10 년후쯤 쓰여진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면서 현현으로부터 해부학으로의 진화 완결
- 2) 베드로 및 제자들의 권위 부여
  - 요한복음의 부록격인 21 장은 베드로에게 특정 지도자로서 지도자 집단과 일반적인 공동체 모두를 다스릴 권위를 부여
  - 세대가 변하며 교회 공동체가 조직되면서 불가피하게 위계질서가 생겨나고, 계급적 순서(pecking order)에 대한 논쟁을 중재할 이야기 필요 → 부활한 예수를 처음 보았다 → 가장 강력한 자격증
  - 영지주의 전통과 충돌하며 예수를 생애에 보지 못한 바울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음을 선언해야 함 → 부활한 주님을 본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권위를 주기 위해 전설적으로 육체의 부활이 확장됨(p129)
  - 부활 현현의 목격자에게 권위와 직책을 위임함으로써 예수운동의 확산을 가능케 하려는 좋은 의도 → 결국 실제적이며 정치적인 행동
  - 결과적으로 개방적이며, 지속적인 가르침과 영감을 얻기 위해 부활한 주님(육체의 부활이 아닌)에게 직접 접근했던 독립성이 많았던 영지주의자들은 '정통'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이단자'가 됨, 2 세기에 이르러...
3. 스캔들(scandal)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다
  - 1) 교회가 당면한 근본적 도전
    - 예수가 목숨을 바쳤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생활방식을 회복해야 한다.
    - 제도 교회의 교리적인 주장들을 포기해야 한다 → 오늘날 믿을 수 없게 된 명제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기초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삶들을 갈라놓음
  - 2) 부활절은 농민 출신의 한 혁명가에 대해 하느님이 'Yes'한 사건이며, 로마제국에 대해 'No'한 사건이다(p137) → 피의 속죄에 관한 선언이 아니라 그 길에 대해 옳다고 확증하신 것
  - 3) 예수는 죽기 위해 온 것이 아니며, 예수가 죽은 것은 그의 생애와 가르침때문이었다. →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은 그에게 가해진 불의를 말소하고, 그의 말씀과 행동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증하시기 위함 (고백적 사건)
4. 예수 다시 살리기
  - 1) 의로움과 혼동해 왔던 의무적인 예배의식들로부터 복음을 해방시킴으로써 복음의 해방적 특성을 회복해야 한다
  - 2) 예수는 지금 이곳(Here and Now)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영생은 결코 예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 하나님과 또 서로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존재 방식 →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
    - 상벌에 대한 인간의 기대를 뒤집어 얹으려는 비유들 → 첫째가 꼴찌가 되며 꼴찌가 첫째가 된다고 선포

- 신앙의 보상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 3) 부활절을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 →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따름으로써,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이생에서 부활의 가능성에 가슴을 열어두고...
- 4) 신약성경이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내주하는 현존을 통해 완전히 바뀐 공동체에 대한 은유적인 증언이 펼쳐지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부활절은 인간 존재의 신비들과 세상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상관이 있으며 부활 이야기들은 헌신의 행동들이다.

D. 평가:

1. 작자가 말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들인) '독생자',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육체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뺀 기독교의 메시지를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다시 쓰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2. 작가 자신의 교회에 여 교인의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와는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나?
3. 제자들의 삶과 고백 속에 부활했던 예수가 초대교회의 존립과 확장을 위해 정치적(교리의) 옷을 입고 특정인들에게 리더쉽과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필요악인가?)